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금의환향

선조26년 2월. 행주성을 수비하던 전라 감사 권율은 벽제 전투에서 명군에게 승리한 우키타 히데이에의 왜군을 대파했다. 한양의 왜군은 지척에서 조선관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므로 전전긍긍했다. 그러다가 한양을 철수해 영남 쪽으로 내려갔다. 전선(戰線)은 임란 초기처럼 영남 쪽에 형성됐다. 드디어 접빈사 유성룡은 4월 20일에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때 유성룡은 자신이 목도한 한양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4월 20일. 서울을 수복했다. 명나라 군사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 제독은 소공주택(남별궁)을 숙소로 삼았다. 전날 왜적은 성을 버리고 퇴각했다. 나도 명나라 군사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남아 있는 백성을 보니 백 명 중 한 명도 살아 있는 사람이 없었다. 살아 남은 사람도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얼굴빛이 귀신과 같았다. 날씨는 매우 더웠으므로 죽은 사람과 말의 시체가 곳곳에 방치돼 있어 썩은 냄새가 성안에 진동해서 행인들은 코를 막고 지나갔다.

관청과 민가는 모두 사라지고 승례문에서 남산 밑 일대에 왜적이 거쳐했던 곳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다.

종묘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종루, 각 관사, 성균관 등 큰 거리 북쪽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재만 쌓였을 뿐인데, 소공주택은 왜적의 장수 평수가(平秀家, 우키타 히데이에)의 숙소였기에 남아 있었다. 나는 종묘에 나아가 통곡하고, 그다음 이 제독의 처소로 가서 문안드리러 온 여러 신하들과 만나 한참 동안 소리 내어 통곡했다.>

그런데 선조는 의주 행재소에 여전히 머무른 채 한양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전한 의주에서 더 있으려고 했다. 따라서 신하들만 한양과 의주를 오가느라고 힘이 들었다. 선조는 한양보다 평양 수비에 더 관심을 두었다. 평양이 또 다시 왜적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의주가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평양 감사 송언신 등만 바꾸고 나머지 장수들은 그대로 두었다.

김억추도 후퇴하는 왜군을 추격하지 못하고 선조의 뜻에 따라 평양에 남았다.

다만 대동강 수군대장에서 임시적인 주사대장으로 직급을 올려 주었다. 수군대장은 수군만 거느리지만 주사대장은 대동강의 병선을 건조하고 정비하는 선소부터 부교설치, 수군 지휘 등 일체를 관장했다. 선조가 김억추에게 주사대장을 맡기려 하자, 유성룡이 반대하기도 했다.

“억추가 대동강에 있으니 든든하오. 과인은 억추를 주사대장으로 올리려 하는데 영상 생각은 어떠하오?”

유성룡은 선조가 하루라도 빨리 한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평양 수비만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했다. 왜군이 한양에서 철수한 뒤, 사헌부나 사간원의 대간들이 선조에게 여러 번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유성룡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아뢴다.

“주사대장이면 큰 벼슬이 아니옵니까?”

“억추가 아니면 대동강을 맡을 책임자가 없으니 주사대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오.”

“전하께서 한 번 더 숙고하신 뒤라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유성룡의 속마음은 김억추의 벼슬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남쪽으로 퇴각하는 왜군을 추격하려면 여러 장수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투경험이 풍부한 장수들을 대동강에 묶어놓고 있는 선조의 판단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결국 김억추는 선조가 그해 10월 1일 정릉 행궁으로 내려갈 때까지 대동강을 지켰다. 이후 다음해까지도 김억추는 대동강을 수비하다가 주로 수군 진들을 전진했다. 고령 침사 1년, 만포 침사 1년, 그리고 조정에서는 김억추의 품계와 직책을 따지지 않고 왜적이 있는 곳이면 달려가 싸우게 했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장흥으로, 그것도 장흥 부사가 되어 내려온 것은 김억추의 나이 50세 되던 해였다. 선조 30년(1597)의 일이었다. 김억추 개인으로서는 금의환향이었다. 김억추가 장흥 읍성에 도착했다는 소문은 강진 땅에 즉시 퍼졌다.

김억추는 장흥 읍성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바로 군사와 무기고, 군창부터 점검했다. 아침 일찍 모여든 군사는 다행히 군적 치부(置簿)에 적힌 숫자와 엇비슷했다. 장흥 읍성은 수군과 육군이 반반이었다. 회령진이라는 큰 수군진영이 있어 바닷길에 밝은 군관들이 많았다.

군관 임영립은 이순신이 임란 초기부터 데리고 가서 활약했을 정도였다. 장흥 읍성과 강진 읍성 중간쯤에 전라병사가 있는 전라병영성이 있으므로 군율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사흘 뒤 김억추는 행수군관 임영립을 동헌으로 불러 위로했다.

“그동안 고상이 많았네.”

“지난 2월 원균이 통제사에 오른 뒤 이 통제사 나리 휘하에 있던 장졸들이 한산도를 많이 떠나부렸지라. 지도 병을 핑계 대고 장흥으로 와부렸지라.”

“장수는 상관을 원망해서는 안 되네. 주어진 자리에서 나라에 은혜를 갚으면 그뿐이네.”

“좌의정께서 이 통제사를 내치고 원균을 밀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요.”

김억추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의정 유성룡은 이순신을 옹호했지만 좌의정 김응남이 선조에게 원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천거했다는 것은 사실이였다. 선조의 파천 때는 유성룡이 천거하여 김응남은 병조 판서가 되어 조정을 이끌었지만 어느 새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였다. 동인인 유성룡은 이순신을, 서인인 김응남은 원균을 밀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김억추는 굳이 따지자면 서인 계열의 대신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셈이었다. 스승인 이후백, 항상 바람벽이 돼준 이이, 김억추의 무재를 인정해준 김명원 등이 모두 서인이기 때문이었다.

“인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당장 나타날 것입니다요. 술독에 빠져 있는 원 통제사는 우리 수군을 모다 말아먹을지도 모르겠그만이라.”

“좌의정께서 원 통제사를 믿는 것은 무신 생각이 있을 것이네. 공계 변방의 우리덜은 서로 심을 모아 왜적을 쳐부술 생각만 허세.”

“근디 인자 쪼깐 달라지겠지라. 이 통제사께서 출옥허셨다고 허고 백의종군허신당께라.”

“좋은 일이네. 근디 임 군관은 내 밑에 있을 장수 같지 않네. 이 통제사가 부르든 당장 가불 장수 같네.”

“죄송허그만요. 이 통제사께서 부르시기 전이라도 가불지 모르겠그만요.”

장수들끼리는 전우애라는 것이 돈독했다. 전투를 한번이라도 같이 하면 끈끈한 의리가 생겼다. 이순신과 함께 싸운 장수는 끝까지 그 휘하를 떠나지 못했다.

김억추 휘하도 마찬가지로였다. 대동강에서 왜적과 싸웠던 나주 출신 차은락과 무안 출신 강옥상이 그랬다. 그들은 장흥 읍성까지 따라와 김억추를 보좌했다.

김억추는 임영립에게 읍성 군졸들을 훈련시키라고 지시한 뒤, 참좌군관만 데리고 회령포진으로 떠났다. 장흥부에서 가장 큰 회령포진을 점고하기 위해서였다. 회령포진은 원래는 조그만 진이었으나 보성의 군영구미 진이 쇠락하면서 커진 수군진지였다. 회령포진에는 전선을 수리하는 선소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회령포진은 사정에 따라 전라좌수영과 전라우수영 관할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간 김억추는 회령포진 성문 앞에서 멈추었다. 참좌군관을 먼저 들여보낸 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흥부에서 가장 큰 수군 진이지만 왠지 스산했다. 진의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참좌군관이 군관 하나를 데리고 나왔다. 만호 부임이 늦어지자 군관이 가장을 맡고 있었다. 김억추가 말했다.

“만호는 읍는가?”

“만호 나리는 원 통제사 나라에게 왔는디 소식이 읍그만요.”

“전선은 몇 척인가?”

“1척도 읍습니다요.”

“모두 한산도로 갔다는 말인가?”

“전선뿐만 아니라 협선까지 모다 가부렀습니다요.”

“수군은?”

“토병을 보충해서 예전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요.”

회령포진 정예수군도 모두 경상도 바다로 나가고 없었다. 김억추는 선소를 먼저 찾았다. 가장의 말대로 선소에는 전선은 물론이고 협선이 단 1척도 없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포작선이 몇 척 개펄 위에 나앉아 있을 뿐이었다. 김억추는 옆에 있던 참좌군관에게 말했다.

“수리혈 전선마저 1척이 읍네. 읍성으로 돌아가세. 여그서 머뭇거릴 여유가 읍네.”

“부사 나라께서 성으로 드신다믄 군사덜 사기가 오를 것입니다요.”

김억추는 가장이 성 안에 들기를 원했지만 거절했다.

“군사들은 사흘 전에 읍성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러니 따로 볼 것은 읍네.”

“동백정도 들리지 않겠습니까요?”

참좌군관이 물었다. 회령포진으로 올 때만 해도 동백정을 들리겠다고 참좌군관에게 알렸던 것이다.

“1월에 왜적이 재침허지 않았는가? 거그까지 갈 시간이 읊네. 요번 재침은 전라도 침략이 목적이여. 진주성을 공격헌 뒤에는 반다시 전라도를 넘어올 것이네.”

김억추가 말하는 재침이란 이른바 정유재란이었다. 김억추는 선조들의 혼이 서린 동백정에 들러 조상께 장흥 부사로 왔음을 고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동백정은 고려 공양왕 4년 경연참찬을 지낸 김린(金潾)이 공민왕 9년 과거에 함께 합격했던 동기인 정몽주가 피살되자 비분강개하여 장흥 호계로 내려와 동백나무를 주변에 심고 나서 초창했는데, 선조 17년 김린의 후손 어모장군 김성장(金成章)이 증건했던 정자였다.

김억추는 김린의 6세손으로서 조상의 혼령께 왜적을 무찔러 나라를 태평케 하겠다고 앞드려 맹세하고 싶었지만 회령포진의 형편없어진 전력을 보고는 마음이 급해져 장흥 읍성으로 급히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장졸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주조하고,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 당장에 할 일이 태산 같았던 것이다.

둘째동생 김만추가 찾아온 것은 두 달 뒤였다. 김억추가 장졸들을 활터로 데리고 가서 습사를 시키고 있는데 김만추가 동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갈이 왔다. 김억추는 행수군관이 된 차은락에게 습사훈련을 맡기고 동헌으로 돌아왔다. 김억추는 김만추를 보자마자 두 손을 맞잡았다.

“만추야. 부모님은 잘 계시냐?”

“강녕하시그만요.”

“으째서 늦었냐? 여그 온 지도 두 달이 넘었고나.”

“농번기에는 꼼짝을 못허지라.”

“그래 성제덜이 고향을 다 떠났는디 니 혼자 남아 고상이 많다.”

병약한 김만추는 집에 남아 부모를 모시기로 형제들끼리 묵인한 바 있었다.

“지가 못난 놈이지라. 다덜 밖에 나가 싸우는디 지만 고향에 처박혀 있는 꼴이지라.”

“효에서 충이 나오는 거여. 불효자가 충신이 된 거 나는 아적 보지 못했다.”

김만추는 동헌 마루로 올라가 김억추에게 정식으로 큰절을 올렸다. 김만추의 얼굴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고향 집에 홀로 남아 부모봉양하고 농사짓느라고 비록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보다 더 늙어 보였다. 얼굴은 숫제 검댕을 묻힌 것처럼 새까맣다.

“니 동상덜도 다 잘 있지야?”

“응추와 기추는 이역기 수사 나리를 따라서 경상도 바다로 나갔그만이라.”

“원 통제사 휘하에 있다는 말이냐?”

“원래는 이 통제사 휘하에 있었지만 이 통제사가 한양으로 압송된 바람에 그라고 있겼지라.”

“이 통제사는 특사로 풀려나 백의종군 중이다.”

“그런게라? 지는 몰랐그만이라.”

한산도에서 2월 26일에 한양으로 압송 당했다가 3월 4일에 하옥되었고 4월 1일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순신은 아산에서 어머니 상을 치른 뒤 바로 백의종군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 오고 있을 터였다. 경상도 초계에 머물고 있는 도원수 권율의 지시를 받아 백의종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복이나 덕복이, 인복이?”

“사촌동상덜이 이 통제사 나리 휘하에서 큰 공을 세웠는디 시방은 으디 있는지 모르겄그만요. 모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라.”

“내가 심이 있으믄 내 밑으로 불러들이고 잼구나.”

“성님 휘하에서 왜적과 싸울 날이 있을거그만요.”

“그랬으믄 을매나 좋겄냐.”

“돌아가거든 집이 가차운게 곧 문안드리러 간다고 전허그라. 당장 못 가는 까닭은 왜적이 재침했는디 훈련이 중해서 그란다. 니가 잘 부모님께 잘 말씀 드려라.”

“예, 성님.”

김만추가 돌아간 뒤 김억추는 끝내 고향집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더구나 아버지 김충정이 노환으로 미질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관노 편에 전해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다. 원균이 7월 16일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했다는 공문이 날아왔던 것이다.

삼도수군통제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 수사 최호와 조선수군 2만여 명이 전사하고 조선 수군의 병선 3백여 척이 침몰됐다는 비보였다. 조선수군이 궤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은 전력이 있다면 경상 수사 배설이 싸우기도 전에 12척의 배를 이끌고 도망친 것이 전부였다. 김억추는 객사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의 궐패 앞에서 4배를 올렸다.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었다. 무도한 왜적을 생각하니 간을 꺼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것 같았다.

몇 천배 몇 만배로 복수하고 싶은 적개심에 김억추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공문을 받아본 지 닷새가 지났다. 김억추는 또 다시 선조의 선전관이 가져온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7월 25일자로 김억추를 전라우수사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정식 교지는 조정이 어수선하므로 공문보다 몇 달 뒤인 12월 중순에나 내려올 거라고 선전관이 전했다.

이는 원균의 참패로 인한 조정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었다. 전라우수사가 공석인바, 일단 7월 25일자로 급히 김억추를 부임시키겠다는 공무처리였다. 한편,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은 8월 3일 진주에서 선조로부터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한다는 어명을 받았다. <계속>